

여수시, 옛 기차길 16.1km 공원 조성

KTX 운행에 따라 발생한 폐선 부지가 여수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선 옛 기차길 16.1km가 내년 상반기에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만흥동 해양 레일바이크에서 둔덕동 주민센터 간 7.7km 구간과 둔덕동에서 소리면 덕양리까지 8.4km 구간이 해당한다.

만흥동에서 둔덕동까지는 여수시가 추진 중이고, 둔덕동에서 덕양리는 여수산단 6개 기업이 공장용지 증설에 따른 대체녹지로 방풍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만흥동~덕양리 구간...시 7.7km · 여수산단 8.4km

산단 공장증설 대체녹지로 방풍림 공원 조성 예정

나머지 2단계 사업인 덕양리에서 울촌면까지 5.3km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선원동 가곡마을에서 방풍림 공원 추진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민 20여 명과 지역 도·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대체녹지 조성에 나선 여수산단 6개 기업은 지난달 24일 사업 착공

에 들어가 12월 현재 측량과 함께 철도용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방풍림 공원 조성은 산단 기업 주관 사업이지만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된다. 여수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참여감독제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7일 공원과 공무원 2명이

감독공무원으로, 소리면·둔덕동·쌍봉동·여천동·주삼동 주민 6명이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됐다.

주민감독관들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반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버려진 고가철도에 만들어진 하이리안 파크가 많은 뉴욕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으로 여수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검은쌀로 만든 대표 빵 개발

빵·과자 등 흑미 식품의 관광 상품화 추진

진도군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흑미(검정 쌀)를 이용해 빵과 과자 등 다양한 식품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매우 높은 진도 흑미를 활용해 특색 있는 진도의 대표 빵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8일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흑미 제과·제빵 개발품 평가와 시식회를 개최했다.

흑미를 활용한 빵·과자 등 8종의 레시피는 향후 지역의 빵 가공 업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농촌 여성들이 참여하는 식품 가공사업장 등에 흑미를 이용한 상품 판매도 추진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흑미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흑미 가공 기술 교육 및 홍보 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흑미 가공품의 사업 기반 조성을 통한 진도 흑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친환경농법으로 정성스럽게 키워낸 완도산 쌀 드세요”

소비촉진 및 대도시 소비자 공략 추진

완도군은 완도산 쌀 소비촉진 및 대도시 소비자 공략을 위해 쌀 품종혁신을 통해 고품질 벼 '완도 자연그대로미(米)'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추진한다.

'완도 자연그대로 미(米)'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은 세련된 포장지와 고품질 단일 품종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해 새롭게 디자인 되었다.

완도산 쌀은 인근 강진, 해남 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햇살로 가는 여정(旅情), '해풍 포옹', '장보고의 보물'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되었지만 판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완도군은 지역농민의 소득증대 및 완도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그동안 완도농협과 함께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도시 특산물 판매에도 앞장서고 있다.

관측활동과 더불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PC 기계교체 농가 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재배 품종도 농촌진흥청이 고시해끼리/계화 2호/주남벼를 교배하여 개발한 '비품' 품종으로 전환하여 17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비품' 품종은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생육 후기 등숙률이 높은 최고 품질의 벼로 특히 쌀이 맑고 투명해 도정후 쌀 모양이 좋고 맛이 좋아 입맛을 사로잡을 품종이다.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뤄지며, 220농가 175ha에서 850톤 규모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다.

군에서는 20kg, 10kg단위의 쌀 포장 뿐만 아니라, 시식회, 샘플 쌀 주문 시스템, 대도시에서 선호하는 소포장 및 보물라이스(병에 담은 쌀) 형태의 쌀 포장재를 개발하여 농협과 함께 대도시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법



으로 고품질 맛있는 쌀을 생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테니, 완도산 쌀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많이 소비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 해조류 구매하러 왔어요”

日 대형 슈퍼마켓 바이어 완도산 수산물 수입위해 방문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이미지가 상승함에 따라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늘리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지난 7일 일본 2개 대형 슈퍼마켓 인원을 비롯한 구매담당자, 톱, 미역 가공업체 관계자 등 11명이 완도산 수산물 수입을 위해 완도군(군수 신우철)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성장하고 있는 톱, 미역에 대하여 해수 수질, 수온 등과 생육 실태를 확인하고, 해조류와 전복 등에 대한 가격과 생산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가공업체를 방문해 완도 해조류를 활용한 가공 단계별 위생상태와 공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식을 하며 품질을 확인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정바다 수도 완도산 톱, 미역이 일본 내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일본인의 식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지방세 성실

납세 40명 경품 추첨

장흥군은 지난 8일 지방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체납세금이 없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했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 추첨추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0명이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당첨자에게는 1인당 5만원권 전 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이 우편 발송됐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서울 간 고속버스 증차운행 실시

평일 및 일요일 각 2회 증차운행...군민 교통편의 향상될 듯

무안 버스터미널과 서울 센트럴 시티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이 이번 달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했다.

금호고속 측이 기존 평일 2회, 일요일 3회 운행하던 무안~서울 간 노선을 평일과 일요일 각 2회 추가 운행함으로써,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증차운행은 이달 1일 개통한 남양~서울 간 고속버스가 무안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증차운행

을 통해 우리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버스운송업체 측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편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고속버스 운행 소요시간은 약 4시간30분이며, 평일 4회(09:20, 10:20, 15:15, 16:20), 일요일은 5회(09:20, 10:20, 13:40, 15:15, 16:20) 운행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역광고판매장소 정문직원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